

## <기장군청 기자회견 발언 원문>

### 1. 정수희(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기장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삼척에서, 경주에서, 울산에서, 그리고 광주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만 기장 주민들도 함께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부산 시민들도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유치 작업을 하겠다고 하니 득달같이 달려붙어 신규 핵발전소, 그러니까 **SMR**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군수가 국민을 팔아먹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으며 자기 잇속만 챙기는 군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현관 앞에서는 또 여러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 선물을 받기 위해 여러 직원들이 수십 명 뒤쪽 로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반드시 가달아 정종복 기장군수를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산은 필요한 전기의 약 두 배를 고리 핵발전소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핵발전소 3기, 신고리 5·6호기보다 더 많은 전력 설비가 만들어졌습니다. 핵발전소 3기 분량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전기를 가장 많이 쓴 시기가 2024년 8월인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핵발전소 60기 분량의 발전 설비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또 지어야 합니까? **SMR**을 또 지어야 합니까? 아니요.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계속 핵발전소를 짓고 왜 계속 **SMR**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장군수는 핵발전소가 있는 고리, 발전소가 있는 장안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MR**을 유치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한 번도 안 가봤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10개의 발전소가 있고 수십 개의 송전탑이 있으며 하늘을 전깃줄이 뿅뿅하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기장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리 1호기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고리 앞바다는 어느 지역보다 예쁜 해수욕장이 되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고향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원전 하나가 들어서서 지금 어떤 풍경이 되었습니까? 10개의 발전소와 수십 개의 송전탑이 들어섰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SMR**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 기장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도대체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언론에 따르면 기장군은 이미 핵발전소로 인해 송변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는 자신만만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디에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까? 올해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몇 해 전부터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송전선이 부족해 더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때문에라도 송전선로가 더 지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SMR**은 기존 송전선로가 있어서 추가 건설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주민들을 바보로 생각합니까?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장군수가 설마 몰랐겠습니까?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발전소, 그리고 **SMR**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미래를 남길지 정종복 기장군수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마지막 발전소 하나 없애지 못해 안달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쓰레기 소각장 하나, 처리장 하나도 두지 않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핵발전소 10개로도 모자라 수명연장까지 진행되고 핵폐기장과 다름없는 임시 저장시설까지 강요되는 이 상황에서 **SMR**을 꼭 유치해야 합니까? 당신이 그것을 유치한다면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신이 반드시 낙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 주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2. 강언주(새알미디어 공동대표)

네, 안녕하세요. 새알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언주입니다. 저는 고리발전소로부터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부산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에 살고 있었죠. 앞서 정수희 활동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활동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와 송전탑, 발전시설들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10년 전쯤 부산으로 이주하면서 저는 거대하게 줄지어 서 있는 핵발전소들과 송전선로를 보고, '아, 내가 정말 이 한가운데로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항의 행동을 위해 전국에서 새벽같이 이곳 기장으로 와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기장에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산 시내 해운대, 광안리뿐만 아니라 이곳 기장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특히 해안가에 줄지어 들어선 대형 카페와 식당, 숙박업소들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곳 기장에는 일광신도시라는 신도시도 생겼습니다. 많은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부산 시내 집값이 비싸다 보니 일광신도시에 첫 집을 마련하고 거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섯 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기장 체험활동을 갔다가 밖에 나와 보니 핵발전소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역시 핵발전소의 존재와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그저 전기를 만드는 시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이 시설의 위험성, 방사능 문제, 그리고 이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어 서울과 대도시로 보내지는지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장은 핵발전소의 존재로 인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이곳은 고리핵발전소와 함께 살아온 40년이 넘는 시간,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핵폐기물의 위험, 미래 세대에 더 큰 위험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소형모듈원전, SMR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SMR이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을 이끌 고품질 전력 공급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대형 원전보다 출력 조절이 유연하고 안전성이 높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고리핵발전소가 처음 지어질 때 나왔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이 발전한다, 이익이 생긴다, 인구가 늘어난다,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게 생긴 것이 고리핵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시기에만 잠깐 돈이 돌았을 뿐, 그 이후의 삶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지역 경제는 핵발전소에 종속되었습니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주민 복지와 교육, 지역 발전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유치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수님, 무엇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말하십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기술로 어떻게 기장의 미래를 담보합니까? 크기가 작다고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핵폐기물도 생기고, 방사능 위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지역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장군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핵발전소나 SMR을 유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과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서울과 기업이 쓰지만 위험과 희생은 지역과 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온 불평등과 부정의입니다. 이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끊어내야 합니다.

기장은 이미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감당해 온 지역입니다. 더 많은 위험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유치 사업이 아닙니다. 수십만 년의 핵폐기물 위험을 떠안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그 위험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SMR은 혁신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도 아닙니다. 기장은 실험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에너지 식민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더 이상의 핵발전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핵폐기물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기장을, 부산을, 울산, 경남을, 경주를 핵의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핵발전소 유치가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제시하십시오. 핵은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기장의 미래는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로운 방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3. 천도스님(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너무 우습지 않아요? 지금 원자력이 뭐라고, 원자력이 뭘 줄 알고 지금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냐고요. 제가 며칠 전에 「왕과 사는 남자」를 봤거든요. 거기에 유비지를 서로 유치하려고 어몽도가 막 “우리 동네만큼 적절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만큼 반성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름은 무지하게 습하고 덥고 겨울은 여지없이 춥습니다. 이런 곳이 유치할 장소가 아니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유치를 따내고 피의 전쟁이 시작됐었죠. 이 울산이든 기장이든 뭐 영광이든 그냥 있는 곳에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한강이나 여의도는 용인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자력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광물로도 충분히 냉각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AI 때문에 10기 정도가 필요하다면 1년, 2년, 3년 이재명 정부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10년, 12년, 13년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또 이 정권을 이어갈지는 모르나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애달프게 AI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 만들 수 있는 원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빠른 설치를 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 해가 고지서를 보냅니까? 바람이 고지서를 보냅니까? 고지서 없는 전기를 만들자는데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저희는 눈앞에, 집앞에, 우리 동네에 원자력발전소 기기가 보이지 않고 송전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플러그를 꽂고 빼면서 온갖 전기를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눈만 뜨면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원자력발전소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고 싶어서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의 고충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주민들이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까? 저는 울주에 살고 있고 몇 명이 원해서 유치를 하겠다는데 저는 찬성한 적이 없고 우리 동네에서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전체적으로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장 군민들에게 모두 다 물어보았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서생 몇 명이 원한다고 해서 울주, 울산 시민들이 다 원하는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모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지금 현재 소형모듈이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하루 이틀, 1~2년 연구한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성공사례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보면서 또 송전탑 밑에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기를 더 얹겠다, 두 기를 더 얹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1년 안에 정한다고요? 1년 안에 어떤 동네에서 “우리 동네 오시오”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서생 면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몰래 갔어요. 몰래 가서 들어보니까 기가 안 차요. 다 찬성하는 분들만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서생에서 원자력 2기를 더 신규로 만든다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도 받으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건 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발전소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발전소를 만든 후 10년, 12년 동안 그 마을에 돌아오는 혜택이 있으려나요? 독약이 독약인지 모르고 맛있게 먹어도 독은 독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가까이 월성과 고리 가까이 사는 주민으로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장군수, 울주군수, 영광군수 이 모든 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6월 선거가 있으니까 계속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가 발전이라는 아주 화려한 이름 아래 국민들의 안전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꼭 해야 된다는 일이면 한강 옆에 가져가고, 그분들은 왜 유치 신청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울주가 만든다고 울산에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기장이 만든다고 해서 기장이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기세를 똑같이 내면서 이렇게 고통을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탄 같은 이 핵발전소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유치 즉각 중단하라.

#### 4. 권영국(정의당 대표)

어 새벽 4시부터 서둘렀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핵발전소를 안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 어떤 느낌일까, 저도 월성 원자력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왠지 굉장히 엄습한 느낌이 들죠. 핵발전소를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가보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안전하고 청정한 청정에너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서서 발언했던 분들이, 이 좋은 에너지를 굳이 왜 자꾸만 탄 데 또 깔려고 하나, 설치하는 데 또 설치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17개 광역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우 공평하게 서울에도 한두 대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너무 안전하고 중요하니까 그렇게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꾸 기장에다가, 또 경주에다가, 또 울진 가까이 영덕에다가, 그것도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좀 분산시켜보자라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걱정됩니다. 저도 그 고준위 핵폐기물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가, 10만 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핵폐기물을 여기에 저장합시다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짓자고 하는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4년 전에 더 이상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이미 대통령 공약할 때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또 수명 연장하지 않겠다, 지금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거 맞나,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로 온기가 필요한 시기는 불과 요 몇 년 내입니다. 그런데 13년, 15년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그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서 정말로 AI 데이터센터로 가고 있는 여기에다가 전기 공급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참으로 심각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5일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탈핵 비상시국회의가 출범했고 여기에는 많은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모인 이

시국행위가 정말 우리의 위험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게 되는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정말 올해가 너무나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더 이상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급하게 AI 데이터센터 전기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15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AI 반도체가 들어오면 다 잘 살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삼성이 번창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지역에 사는 건 무엇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짓는 이런 대재벌 자본만 번창하면 되는 겁니까? 지방은 전기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위험의 경쟁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으로 국민주권 정부라면 국민들이 다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버젓이 국가 비전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산 기장에 있는 국민들은, 울산에 있는 울산 시민들은, 경주에 있는 경주 시민들은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방사능에 피폭되며 살아야 합니까? 이걸 왜 당연합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과 명예는 수도권 위로 위로 쌓아올립니다. 고통과 상처는 아래로 아래로 흘려보내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의 결론입니다. 공약도 약속도, 후보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립니다.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원전을 위한 유도된 여론조사,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원전 신규 건설을 원한다고 뺨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의도에, 한강에 이제 신규 원전 지어봅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핵 산업계와 막대한 이익을 좇는 재벌 대기업만을 추구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기장군수에게 촉구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위험한 핵발전소를 지역에 떠넘기며 주민들의 희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김성환 장관 즉각 해임하십시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그 위험을 몰아주는 잘못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기장군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5.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SMR을 짓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한수원이 유치 공고를 한 것을 보면 서울에는 못 짓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세 지역, 바다에 접해 있는 지역만 SMR이든 대형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SMR을 짓겠다고 당시 흥준표 시장과 함께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체코에 핵발전소를 지금 짓겠다고 한수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도 했습니다. 체코는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내륙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는 것이 저는 그런 데 나타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SMR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 한수원의 사업설명회도 있었고 관련한 원자력연구원의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서울 한가운데도 SMR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발전소 부지 공모를 할 때는 바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경주 그리고 영덕, 군산, 포항, 2005년도에 핵폐기장 문제로 주민투표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딱 20년 됐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했고요.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네 개 지역을 경쟁을 붙여서 그중에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핵폐기장을 짓겠다고 그렸고, 네 개 지역이 정부의 계획에 우리 지역이 더 좋다고 경쟁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유배지를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핵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서로 싸웠던 기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군데 지역입니다.

기장, 울주, 영덕, 경주, 또 다른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 뭡니까? 핵발전소가 있거나 핵발전소 때문에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지역입니다. 영덕은 1989년도부터 핵폐기장 부지로 지정되어서 세 번이나 핵폐기장을 막아낸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영덕에서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장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기장의 고리핵발전소 앞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처음에 이 발전소가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공장 들어온다고 그랬다더라, 통조림 공장이라더라 그렇게 얘기 들었다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전소가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지금 10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산과 울주 사이에 대형 핵발전소를 또 짓고 SMR을 짓겠다고요. 참 안타깝고 정말 답답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센터에 다들 열광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들끼리 경쟁시키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서울에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막상 지으려고 하면 서울에는 못 짓는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얘기들, 지금 21세기입니다. 70년대, 80년대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으셨지만 저희 탈핵 비상시국회의, 이런 내용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알릴 겁니다. AI 열풍이요, 몇 년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60년, 80년 동안 이곳 지역에 남을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저는 정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지역에 계신 분들과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울주군청 기자회견 발언 원문>

### 1. 유에스더(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유에스더입니다. 울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탈핵 동지 여러분, 딱 일주일 전 광화문에서 전국 150여 개 단체가 모여 탈핵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오늘과 같은 긴급 행동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비상시국을 선언했습니까? 지금 전국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등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도, 주민 동의도,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재생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송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논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광장을 지키며 우리는 핵 폭주 윤석열 정권을 몰아냈지만, 핵발전 정책이 또다시 확대되는 지금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입니다. 신규 발전소 유치 문제는 중앙정부의 결정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지자체장의 태도, 지역

정치권의 자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 울주에 왔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께 묻습니다. 울주군은 또다시 핵발전의 위험을 떠안을 것입니까? 핵발전 위험의 최전선으로 또 내몰릴 것입니까? 울주군은 중앙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데서 그칠 것입니까, 아니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가 될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유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단 한 사람의 동의도 없다면 지금의 핵발전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울주군청 앞에서의 행동은 울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시작했고, 경북 경주로 이어갈 것입니다. 서울과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함께 결합하고 있습니다. 울주의 싸움은 기장의 싸움이며 경주의 싸움이고, 전국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발전의 위험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투쟁과 연대 또한 서로를 잇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핵산업 지대의 거점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군민의 뜻을 외면하고 핵발전 확대 정책에 협조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과 더 넓은 연대,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힘없는 이들의 삶이 짓눌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탈핵 비상시국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 추운 겨울을 더 춥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전기라는 이유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왜 말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전기는 내년, 후년 이렇게 필요한데 15년 후에나, 13년 이후에나 가동이 가능한 그 핵발전소를 마치 내년에 쓸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만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원전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도대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그것이 송전탑이 아닌 다른 무엇인 것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중앙집중적인 전기를 더욱 서울로,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인용했던 원전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는 누가 봐도 유도된 질문이었습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계획 속에 이미 신규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기는 더 필요한데 신규 원전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의도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마치 국민들의 전폭적인 필요성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울주군과 인연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약 3년 정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20여 분 가면 온산면, 지금은 온산읍으로 바뀐 곳에서 통상금속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온산 앞바다는 공해의 바다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가 가져올 위험을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32개의 핵발전소로도 차고 넘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영향이 가장 폭발적으로 클 곳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짓는 옆에 또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전기는 사용 소비량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도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전력계통에 접속시키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울주군수에게, 그리고 울주군에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원전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과연 울주군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월성 주변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즉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장만 계속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두려운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10만 년 이상 저장해야 할 그 쓰레기 처리장도 만들지 못하면서 계속 핵폐기물을 생산하는 핵발전소를 지어 미래 세대의 안전과 위험은 누가 책임집니까?

마지막으로 울주군수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직선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택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주권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군수라면 최소한 위험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한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위험으로 내몰지 말고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 3.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장에서 울주까지 오는데 약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인접 지역이기도 하고 핵발전소가 울산이나 부산이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신고리 3·4·5·6호기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냥 행정구역상 부산과 울산으로 구분했을 뿐이고, 경주까지 포함하면 영남권에 이렇게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30배, 프랑스의 3배에 달하는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오염을 듣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그리고 진짜로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그만하는 것을 넘어서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 모두를 금지시켜야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을 서로 유치 경쟁하듯이, 서로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산시장, 울주군수, 경주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신규 핵발전소 유치 경쟁을 심판하기는커녕,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는커녕 뒤로 물러앉아 경쟁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장들은 그 미끼를 보고 달려드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이런 오염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유치전, 서로가 세계 최고를 넘어서 또다시 세계 최고를 갱신하겠다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 갱신이라는 이 미친 짓을 그만둬야 합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는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핵발전소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노후 핵발전소를 포함해 신규 핵발전소까지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 4.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권영국 대표님이 울산과의 인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의 고향은 울주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왔습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홍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울리'라는 지명이 낯익었습니다. 저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의 청소년 시절은 사찰과 가까웠습니다. 주말만 되면 절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울산 정도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크게 비뚤어지지 않고 보낸 것도 나름의 수행 생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가 되면 이곳 문수산 사찰에서 새해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자란 것은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를 남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생으로 소풍을 자주 오곤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 우리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최첨단 과학 시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자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을 하며 후쿠시마 현지에서 핵사고의 참상을 직접 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자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 고리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무대에 처음 서게 되었고, 그때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핵발전은 범죄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울주군청을 바라보며 크게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군 단위 청사 가운데 가장 웅장한 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모든 곳을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주시청보다 두세 배는 커 보였습니다. 이렇게 돈 많고 잘사는 울주군이 무엇이 부족해서 알량한 보조금에 기대어 핵발전소를 지어 달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기장을 거쳐 왔고, 오늘 이곳을 지나 다시 경주로 이동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자체장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발전을 말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니 자기 지역에 짓겠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왜 기장·울주·경주·울진 같은 특정 지역만 애국자가 넘쳐납니까? 다른 지역에는 애국자가 없습니까? 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애국은 희생을 강요받는 애국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동네가 평화롭고 살기 좋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참 애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울주군청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서생으로 달려가 더 이상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울주는 핵발전소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보상금에 눈이 멀어 핵발전 유치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역사 앞에 죄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큰 군청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청 로비에 전시된 핵발전소 모형부터 당장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5. 한은영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우리 아이들에게 '핵 쓰레기장'이 아닌 '아름다운 울주'를 물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 청량읍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울주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도시에서 보기 힘든 푸른 산과 깊은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을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오히려

독이 된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산이 아름다우니 케이블카를 놓겠다 하고, 바다가 있으니 냉각수로 쓰기 좋다며 자꾸만 핵발전소를 지으려 합니다.

울주군민의 삶터는 국가의 에너지 실험장이 아닙니다.

### 1. 이미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 우리는 충분히 인내해 왔습니다

이미 울주군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뻥뻥하게 들어선 밀집 단지입니다. 지진 소식 한 번에 가슴이 내려앉고, 작은 화재 뉴스에도 아이의 손을 먼저 움켜쥐어야 하는 이 불안한 일상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자연재해 앞에 100% 안전이란 없습니다.

### 2. 수만 년의 짐, '핵 쓰레기'를 아이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전기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수만 년간 관리해야 할 위험한 '핵 쓰레기'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 3. 정부와 울주군수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시대의 흐름은 안전과 재생에너지입니다. 왜 거꾸로 가려 합니까?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십시오. 낡은 기계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님, 신규 원전 유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군민의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울주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신규 원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 4. 엄마의 이름으로 멈춰 세우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울주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방사능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과 정치인들이 경제 논리를 앞세울 때, 엄마들은 아이의 생존권을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에 지으라고 합니다. 생명을 키우고 안전을 중히 여기는 입장에서 그말도 차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곳에도 더 짓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원전 마크가 박힌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반했던 그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온전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울주군수는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 <경주시청 기자회견 발언 원문>

### 1. 이현숙(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이현숙입니다. 저희는 경주 핵발전소가 경주와 울산으로 나누어진 곳이 아니라 생활문화권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환경운동연합은 1980년대 말 신월성 1·2호기 건설 때부터 상근 활동가 두 명이 현장에 가서 매일같이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운동을 해 온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핵발전소라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고리 1호기 1979년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왜 핵발전소 문제로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핵발전소는 1940년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자체는 범죄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마치 평화의 수호인 것처럼, 국력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가 올림픽 유치하듯 서로 앞다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우습고도 지긋지긋한 과정을 우리는 30년 이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생 주민들은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뚝뚝 뭉쳐 한수원에도 가고 국회에도 가며 우리 동네에 해 달라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만큼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영덕이나 경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민 수용성 100%라는 말이 울산 울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안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왜 국가가 만듭니까?

이런 상황을 주민의 삶과 안전, 미래, 지역 발전과 지역의 진정한 삶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많은 사람이 취직하고 지역이 화려하게 발전하는 것처럼 꾸며 희생을 호소하는 일을 40년 넘게 반복해 왔고 지자체는 지금도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폭탄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 폭탄을 더 들여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걸 아닙니다. 우리 경주, 울산, 포항, 영덕, 부산 시민들이 뚝뚝 뭉치고 전국 국민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앞날을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갑시다. 그 길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탈핵입니다.

## 2. 문현지(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공동위원장 문현지입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원전 확대의 필요성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탈원전의 로드맵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깊게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핵발전소 부지 공모에 나섰고, 주낙영 시장은 SMR 경주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원전 확대의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문제는 전력 부족이 아니라 산업과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몰아놓고 그 부담을 지역으로 떠넘기는 정책 구조입니다. SMR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경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경주에 SMR이 왜 필요합니까? 경주시는 세계인이 찾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가 아니라 경주를 핵발전의 중심지로 만들 셈입니까?

특히 SMR의 최대 장점이 작아서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곳에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닙니까?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서 쓸 전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강남과 여의도에 각각 SMR을 설치해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과연 수도권에서도 유치 경쟁이 일어날까요? 저는 경주시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조의 문제입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위험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에 대한 맹신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원전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을 막아내고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고려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3. 권영국(정의당 대표)

네, 반갑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경주시청 앞에 섰습니다. 제2의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곳이 경주입니다. 경주를 떠올리면 천년 고도의 역사·문화 도시를 생각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늘어만 가는 핵발전소 유치 시도에 참으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미 월성 원전이라는 대형 핵발전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SMR이라는 소형 원전이 또 필요합니까? 이것은 누구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형 원전은 전력 송전이 어려운 곳이나 전력 생산이 쉽지 않은 지역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 원전이 있는 이곳에 또다시 소형 원전을 갖다 붙이려 합니까? 주낙영 시장은 이미 세 번째 원전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핵폐기물이 발생하는 위험한 핵발전에 의존해 경주를 운영하려는 것입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대표 시절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원전의 경제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는 핵발전을 왜 다시 줄속으로 추진하려 합니까? 왜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또다시 핵발전 중심 도시로 만들려 합니까? 줄속 추진은 반드시 문제를 낳습니다.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소형 원전을 거짓된 명분으로 유치하려는 잘못된 행정,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또한 유도된 것 아니었습니까? 이미 전력 계획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고 전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채 묻는다면 누가 반대한다고 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고 성숙한 에너지라면 왜 수도권은 원전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경주 같은 지역에만 요구합니까? 경주시청 여기에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작은 것처럼 설명하지만 출력은 700메가와트로, 현재 건설되는 대형 원전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월성 원전은 중수로 방식이기 때문에 핵폐기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핵발전을 늘리면 이후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낙영 경주시장은 몇십 년 후 이곳을 떠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경주는 햇빛이 풍부하고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자연이 주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월성 원전에서 얻는 이익을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사용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경주시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안전하고 청정하다는 주장과 달리 수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들어가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방사능 피폭의 위험 때문입니다. 더 이상 청정하다, 안전하다고 기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핵폐기장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후퇴하는 핵발전 정책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민을 위해 직을 걸고 핵발전 유치를 중단하십시오.

### 4. 김현우(탈핵신문 이사장)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30분 전에 국회에서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반대한 의원은 한 9명밖에 없었고 기권도 10명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민주당이 거의 다 찬성한 거죠. 그런데 한국이 SMR 개발 지원을 안 했느냐, 아니거든요.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을 계속 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SMR 설계가 있었죠. ‘스마트(SMART)’라는 설계가 있었습니다.

표준설계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사우디에 짓겠다고 이야기까지 했고, 사우디 인력도 데려와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해놨지만 실제로 따져 보니 여러 개를 지어도 별 쓸모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 **SMR**의 운명입니다.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설계해 보지만 정말 대량으로 찍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 양산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1단계 수준인데 **SMR**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SMR**은 ‘스몰’이 아니라 ‘스페셜’, 태어나지도 않은 기술을 특별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기술인데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수원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 공모를 하면서 **SMR**도 함께 포함하자 경주시가 “우리는 **SMR**을 하고 싶다”라며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 공모를 보면 **SMR**도 해안 지역에서 유치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25개 자치구마다 하나씩 **SMR**을 두고 전력과 난방을 해결하고 남으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자력학회와 한수원은 **SMR**이 냉각이 쉽고 안전해 내륙 어디서나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해안 지역입니까. 왜 또 경주와 기장 같은 곳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자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공모 기준입니다. 대형 원전은 2기에 32만 평, **SMR**은 15만 평 이상 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SMR**은 아직 설계인가도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몇 평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0.7기가와트 규모라 15만 평이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한수원과 경주시가 특정 부지에 맞춰 공고를 낸 것 아닌지 의혹이 듭니다. 의혹이라면 해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만약 경주가 유치에 성공한다면 그 부지 안에서 **SMR** 설계가 바뀌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인허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바뀌면 다시 바꿀 겁니까. 실제로 **SMR**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도 경제성이 안 나와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작다고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원전이 버스라면 **SMR**은 택시라는 비유가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택시는 효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대량 보급될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지금은 설계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위험한 절차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공모를 취소해야 합니다. 검증된 뒤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경주시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실증로는 1.4기가와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실험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 지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주는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더 이상 핵시설을 들이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수로 폐기물이 쌓이고 중간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경주는 천년 고도입니다. 하지만 핵폐기물은 천년이 아니라 만 년, 십만 년을 갑니다. **SMR**을 만든다면 15년, 30년이 아니라 수만 년 뒤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주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